

경제 · 정의로 희망의 싹 틔우다

박준배 시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 2년 시정성과와 하반기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민선 7기 전환점을 돌고 있는 김제의 현주소와 새로 시작된 2년의 정책 비전을 들여다보고 김제시가 보여준 저력과 앞으로 보여줄 미래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알아 본다.

지난 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박준배 시장은 취임과 함께 정의를 화두로 경제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정의기반 행정시스템을 시정 운영에 접목했다.

박준배 시장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은 공무원 조직부터라는 가치관으로 가장 먼저 조직 혁신을 주문했고 시정 운영 3대 원칙 중 최우선으로 '인사정의 7.0 실천'을 내세웠다. 승진서열명부 70%까지 우선 승진하는 제도를 통해 청탁 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만들어진 시정성과와 성공적인 공약이행이 시민들의 삶에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민선7기 박준배호의 전반기 행하는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5%가 전망되지만 김제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등 김제시는 지난 2년간 희망의 싹을 틔우고 값진 열매를 맺었다.

민선7기 전반기, 변화와 혁신으로 이룬 성과

지역 현안 해결 · 성장동력 준비 '온 힘'

▲지역 발전 효자 노릇 특출... 국가예산확보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선정, 지방재정 채무 제로 실현

민선7기 이전 불과 5,000억원대에 머무르던 국가예산을 2019년 7,031억원, 2020년 8,052억원 2년 연속 역대 최대 확보해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농업, 복지, 경제, 안전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된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도 한몫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을 필두로 전 공직자가 청와대, 정부, 국회 문턱이 낮도록 뛰어다녀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841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393억원),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300억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건립(250억원)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을 포함하여 총 125개 3,026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2018년 취임 당시 김제시 채무는 59억원에 달하였으나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와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 전액 상환하여 이자 비용 절감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였다.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 속속... KTX 김제역 정차 실현, 김제육교 조기 개통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멈춰섰던 KTX가 지난해 9월 김제역에 다시 정차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았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던 시기에 박준배 시장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무모하리만큼 우직하게 KTX 김제역 정차를 추진해 갔다.

사회단체 희망 릴레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와대 · 국회 · 국토교통부 · 한국철

도공사를 수십 차례 찾아가면서 이룩한 KTX 김제역 정차는 시민의 열원이 보내준 기적과도 같은 도전과 성공이었다.

1985년 가설 이후 오랜 기간 노후화되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와 시민 교통 불편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시작된 사업이었다. 박준배 시장은 취임 이후 발 벗고 나서 어렵게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불편 최소화와 인근 상권 회복을 목표로 공기 단축에 힘을 결과,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개월 공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개통할 수 있었다.

▲사람과 부가 모이는 도시... 일자리 중심 시장 운영체계 혁신, 국내 · 외 우량기업 유치

박준배 시장은 일자리가 복지의 시작임을 강조해왔다. 먼저, 지난해 2월 경제진흥과를 신설하고 일자리 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민선7기 목표 대비 128% 초과한 3,85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 1.9% 상승 및 실업률 0.3% 하락의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다.

또한, 박준배 시장은 도청 재입 시설 12년간 해의를 넘나들며 기업유치에 열정을 바친 경험을 토대로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도입하여 대기업 및 중소 · 중견기업 29개소를 직접 찾아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국내 · 외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호룡, (주)신성이앤지 등 25개 기업으로부터 2,042억원 투자를 이끌어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을 90%로 끌어올렸고, 신속하게 제2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착수했다.

더불어, 100% 분양신화를 이룬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이어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을 전격 결정하는 과감한 정책으로 특장차 기업



KTX 김제역 정차 개통식

들의 성공적인 투자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평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차 재지정의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래 100년 성장동력 준비... 새만금 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약

김제시는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찾게된 기회와 땅 새만금에 불어온 희망의 바람을 온전히 담아냈다.

우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며 핵심 인프라인 신항만은 부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재원으로 전환됐다.

해양관광 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심포항 내수면 마리아 조성은 국가 마리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해양레포츠, 관광, 휴양시설을 갖춘 마리아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수십 년 김제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인 용지정착농민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정부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시켜 새만금 구역의 수질 오염 및 악취 개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공동체 조성

김제시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정책들을 적용해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준비반은 지금까지 11명의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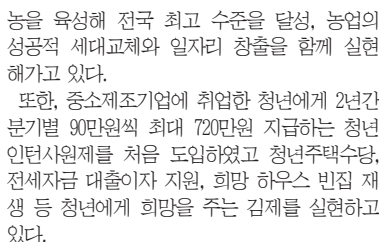
청년창업 분야로는 전북 최초 청년공간 E:DA(이다) 조성, 청년창업가 아리(All-Re)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등 청년들의 김제 유입을 적극 유인하고 2018년부터 111명의 청년 창업



호룡 지평선산단 분양 계약



김제육교 개통식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을 육성해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 농업의 성공적 세대교체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급하는 청년인턴지원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 등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김제를 실현하고 있다.

▲생생한 현장 행정... 섬김 시정으로 시민 감동 실현

박준배 시장은 김제시정의 출발과 중심은 시민이라는 신념으로 취임과 동시에 직소민원의 날을 매주 운영하여 해묵은 논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냄으로써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했다.

▲상생 · 평화의 문화 자금심 고취

세계 축제 반열에 올라선 김제지평선축제는 그 유명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모악산축제는 상생 · 평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나가고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모다 아울렛 개장 등과 함께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뮤지컬 등 청년 문화 예술단 지원, 심포 마리아항만과 복합

단지 조성, 새만금-만경강-동진강 물레길 조성 등 김제시 문화 ·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또한, 농약전통체험관과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제2 체육공원 조성 등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여유 넘치는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의와 원칙을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도약하여 김제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김제를 만들겠다"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심포항 마리아항만



중소기업 전용 주택 건립



선암자연휴양림

을 수 있었다"면서 "사랑하는 고향, 김제를 푸른 꿈이 넘실대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준배 시장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김제 산업지형을 바꿀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각오와 불굴의 의지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선7기 앞으로 2년

지역 강점 활용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박준배 시장은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는 더욱 특화 발전시키고 김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 미래 성장동력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김제시는 관내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평선산업단지 내 400세대 민영 아파트와 120세대 LH 행복주택 조성,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함께 추진해나가는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제시는 전북도 · 익산 · 완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전국 1위로 선정되었고 5년동안 300억원 예산을 투입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안전 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유치와 창업에 도모함은 물론 농생명 식품산업의 혁신고도화를 위한 여러 패키지 사업도 준비 중에 있으며 관내 특장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구축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조성될 복합단지에 첨단산업을 유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2 특장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김제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시켜 김제의 새로운 산업경제 지도를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꿈 실현

전국 최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기술을 관내 농산원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임대단지는 30ha를 시작으로 1,000ha까지 배정 ·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김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1위의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권역별로 지역 특화작물을 육성하여 기초적인 농산품목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까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구현하고 우리 전통 한과의 세계화 · 고급화에 도전하며 농업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본 인프라인 영농기반시설 투자를 2017년 15억원 수준에서 민선7기 들어 200억원까지 확대해 탄탄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선정을 발판삼아 로컬

푸드 복합문화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김제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도는 18.2%로 도내 시 단위에서 단연 1위이다. 앞으로 현재 54개 운영 중인 사계절 농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할 수 있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9월 개관한 치매안심센터는 통합치매 관리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아름다운 노년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활 ·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타운도 한창 조성 중에 있다.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별 특성에 맞게 상담과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신축하고 안심 출산 및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김제를 실현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조성

관내 전 노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공공형콜택시 운영,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박준배 시장 취임 이전 사업을 축소하여 개발을 종료하려던 선암자연휴양림은 11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북 서부 평야권 최초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환경지킴이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심지보다 심각한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설편안천코너 및 표장용기 지원